

보도자료

배포일 : 2025.9.29.(월)

더불어
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

□ 국민소통국 : ☎ 02-2630-0050 □ 담당 : 이주형 부장

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,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 공개

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(위원장 김현·전용기)는 지난 26일(금)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공개하며 당의 입장을 밝혔다. 이번 심리는 총 5건에 대해 진행되었으며, 각 언론사와 합의한 결과를 밝혔다.

먼저 한국경제와 조선일보의 기사 등 3건에 대해 심리가 진행됐다. 한국경제가 8월 10일 보도한 「정청래 첫 고위당정…김병기 불참에 뒷말」은 반론보도문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. 이어 조선일보의 8월 18일자 「[광화문·뷰] ‘갑질당’ 민주당과 ‘갑포당’ 국힘, 누가 더 나쁜가」 기사와 8월 26일자 사설 「‘비명횡사’ 민주당이李大통령과 엇나가는 상식밖 움직임」은 반론보도 기재로 합의했다.

한편 뉴데일리와 조선일보 유튜브가 같은 논조로 보도한 8월 18일자 기사와 영상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됐다. 뉴데일리의 「[단독] 민주당, 국회에 ‘北 선전 공신’ 불러 반미·공산주의 찬양 세미나 … ‘한국, 식민지 노예 상태」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「민주당, 국회에 ‘北 선전 공신’ 불러 반미·공산주의 찬양 세미나 … ‘한국, 식민지 노예 상태」 [짹하고 해뜰날]」 영상은 모두 제목을 수정하고 반론보도를 기재하기로 합의됐다.”

김 현 국민소통위원장은 “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기본이 기본이지만 당의 입장이 공정하게 기사에 반영되기를 바란다” 밝히며, “앞으로도 공적 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

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” 고 덧붙였다.

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번 심리 결과를 계기로 허위·왜곡 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, 당의 입장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.

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에 깊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.